

# 1. 서론: 문화적 변화

## Introduction: Cultural Changes

당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기원후 2000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0년 전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미 결혼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 신약시대에 살았어도 결혼했을 확률이 높다. 또한 당신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200년 전에만 살았더라도 이미 결혼했을 것이다.

200년 전에는 결혼 연령이 지금과는 달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 당시의 일들을 현대에 빗대어 볼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된 단어의 의미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나오는데, 약혼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는 'espous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betroth'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NIV 성경에서는 '결혼하기로 약정했다 (pledged to be married)'라고 되어 있다.

각 단어를 1975년 『웹스터 신 20세기 사전(Webster's New 20th Century Dictionary Unabridged)』에서 찾아 보면,

-Espouse: 혼인을 약정하다; '왕이 외국 왕자에게 딸의 혼인을 약정하다.'

-Betroth: 혼인을 약정하다; '아버지가 딸의 혼인을 약정하다.'

-Pledge: 약속하다.

NIV 성경에서는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셉의 부모와 마리아의 부모 사이의 약속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요즘 인터넷 사전에는 espouse와 betroth 단어의 정의에서 부모의 역할을 포함한 예문을 찾아 볼 수 없다. 과거에는 평범했던 부모의 역할이 요즘에는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9절을 읽으면서 종종 다른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요셉이 3가지 번역(King James, New King James, NIV)에서 모두 '그녀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헬라어로 'aner'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49번이나 '남편'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같은 'aner'가 신약에서 156번이나 '남자'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즉, 요셉은 '그녀의 남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The Message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요셉에게는 어느 수식어(남편 또는 남자)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의 변화도 고려해봐야 한다.

다문화 사역자들은 각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는 고국 문화와 현지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은 '싱글'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의미와 현재에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여러 개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알지 못한다.

### 19세기까지의 대다수 문화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싱글이라는 단어는 오늘날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컬었다. 하지만 누가, 왜 싱글이었는지 오늘날과 다르다. 누가, 도대체 왜 싱글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대의 결혼 풍습과 법을 이해해야 한다.

### 사춘기 나이의 결혼

구약의 히브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신체적 성숙기로 접어드는 사춘기 나이에 결혼했다. 탈무드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 적령기에 대해 나오는데, 이들 대다수는 사춘기를 결혼 적령기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탈무드의 몇몇 랍비는 딸을 사춘기까지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딸을 매춘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레19:29). 당시의 법으로 결혼을 위한 최소 연령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였으며, 이는 후에 유대 여성의 성인식인 바 미츠바(Bat Mitzvah)와 남성의 성인식인 발 미츠바(Bar Mitzvah)의 시기로 공식화 되었다.

신약 시대의 로마법에 의하면 여성은 12세, 남성은 14세에 결혼할 수 있으며, 1000년 전 영국 법에도 여성은 12세, 남성은 14세에 결혼할 수 있으며, 200년 전 미국 법에도 여성은 12세, 남성은 14세에 결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나이에 실제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대부분 사춘기가 그 이후까지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춘기 나이쯤에 결혼했다. 어른이 되고,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당시 미혼은 대부분 어린이였다.

## 부모가 정해준 혼인

구약시대 유대 문화를 비롯한 많은 문화에서 결혼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오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아내의 조건과 어떻게 찾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였다 (창24장). 이삭은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라반의 딸과 결혼할 것을 이야기 했으며 야곱은 이에 순종했다 (창28장).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기를 원했고, 라반과 약속까지 했으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주었다(창29장). 야곱이 이런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라반은 작은 딸을 큰 딸이 시집가기 전에 결혼시키는 것은 ‘당시 사회 풍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춘기에 결혼하는 풍습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영국, 미국의 식민 문화에서의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는 풍습을 따랐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순결을 맹세하는 것으로 ‘웁아매지’ 않고, 대신 가능한 빨리 결혼시켰다. 이런 문화에서 사춘기 이후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40세가 되어서야 결혼했다. 레아가 눈에 장애가 있어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라반은 배우자를 찾아주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려고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창29:25-26).

수천 년 동안 미혼은 사춘기 이전이거나 부모가 배우자를 찾아주지 못한 경우였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 강제결혼은 아니었다. 만약 예비 신랑 또는 신부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신랑 또는 신부 (또는 부모)는 정해진 배우자와의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에 새로운 배우자를 다시 찾아야 했다.

(For more information see Appendix D) 참고 자료 부록 D

## 싱글 선교사 사역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19세기까지, 복음은 전세계 여러 문화에서 싱글 사역자에 의하여 주로 전파되었고, 이들은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사도 바울이 싱글이었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는 독신을 권하였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아니고, 결혼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싱글이 배우자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독신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수녀들이 전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였다(마19:12).” 전세계로 파송된 가톨릭 선교사의 대다수는 남성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독신의 삶을 선택하였다.

수녀들은 가톨릭 교리문답 923번에 나오는 예식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겨진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처녀는 교구장 주교에 의해 예배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성별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신비롭게 연합되며 교회의 성감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 수녀들은 이를 결혼 예식으로 생각하여 결혼 반지를 끼기도 한다.

## 19세기 이후의 서구 문화

19세기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는 법적인 최소 결혼 연령과 사춘기 연령에 변화가 일어났다. 동시에 정략 결혼의 빈도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 사춘기의 결혼은 불법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국가에서 사춘기 나이가 남성과 여성 모두 3-4년 정도 일찍 찾아오게 된다. 여성의 사춘기는 16세에서 12세로 감소했고, 남성의 경우는 17세에서 14세로 감소했다.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약 2세기 동안 수백 개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같은 시기에 국가들은 법적인 최소 결혼 연령을 약 6년 정도 높였다. 20세기 중반에 와서 최소 결혼 연령이 여성은 18세, 남성은 21세가 되었다. 성에 따른 나이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일찍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 대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결혼 연령을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로 변경하였다.

그림1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싱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춘기 이후 수년이 지나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종류의 싱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적어도 5-6년 동안은 싱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강제적’ 싱글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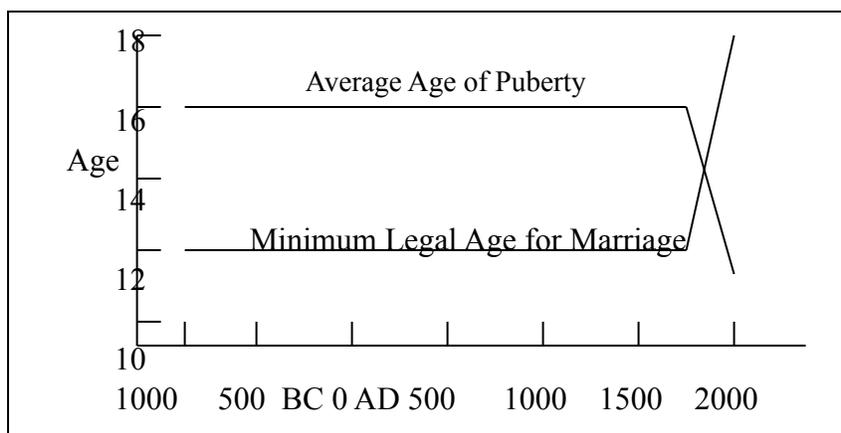


그림1. 여성의 평균 사춘기 연령과 법적 최소 결혼 연령에 있어서 과거 3000년 동안의 변화. 남성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2년 더 많다 (1960년 이후의 결혼을 제외하고).

## 결혼 당사자끼리 스스로 결혼 결정

같은 시기인 지난 몇 세기 동안, 부모에 의한 정략결혼이 감소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하고 부모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모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19세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아예 결혼을 못해 싱글인 경우도 부모에게 배우자를 찾아주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물론 지난 수 천년 동안 그래왔듯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싱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연령이 지났는데도 싱글인 사람들은 부모가 정해준 배우자에 대해 혹은 싱글에 대해 부모를 탓할 수 없게 되었다.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 속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우자를 찾는다. 반면 온라인 중매 사이트에서 미래 배우자를 추천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직한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물색해오라고 청했듯이,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가운데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온라인 중매 사이트에 배우자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추천 받은 상대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시 싱글이 된 사람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상당기간은 한 번 결혼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싱글이 될 수 없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혼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사별한 사람들이 재혼할 배우자를 찾으면서, 이런 사람도 싱글의 범주에 들기 시작했다. ‘싱글’이란, 현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바뀌면서, 서구 사회 구성원 중 싱글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의 2007년 조사 결과 처음으로 결혼한 성인수보다 싱글 성인이 더 많았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경우가 없으나, 추세로 보아 곧 성인 중 기혼자수보다 싱글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미국 인구조사국에서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미 인구조사국은 그저 사람들을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분류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세 하위항목, 즉 미혼자, 이혼자, 사별한 자로 분류된다.

## 대부분 기혼자인 선교사들

19세기 초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개신교의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시대부터 현재까지 장기선교사들 대부분은 기혼자이다. 개신교 선교사 중 지도자들은 대개 기혼남성이라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선교지로 정한 대륙의 해안을 따라, 나중에는 바깥 세상과 거의 접촉이 없는 오지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늘날 개신교 선교사 중 4분의 1정도가 싱글이고, 그 싱글 선교사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싱글 여성선교사 중 몇몇은 선교단체에서 여성이 남성을 지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지도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도 어떤 여성선교사들은 훌륭한 사역 지도자로 떠올라 책과 영화로 그 삶이 그려지기도 했다.

## 결론

200여 년 간 서구 문화가 사춘기 이후 몇 년 동안 싱글 시기를 거치며 살도록 하면서 싱글의 정체성이 달라졌다. 게다가 배우자 선택이 부모의 의무가 아닌 본인 책임이 되면서 배우자를 찾기까지 미혼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세기 전까지 흔했던 10대의 정략 결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

다. 서구 문화권에서 자라난 자녀 중 사춘기에 어른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아이는 별로 없다. 실현 가능할 수만 있다면 사춘기 청소년이 어른 노릇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어른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적도 없고, 학교에 다녀야 하며, 일하는 것도 금지 당했다. 사춘기 자녀들은 책임감이 없으며, 실제로 그들이 책임감있게 행동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언제나 싱글들은 선교 사역에서 중요했다. 싱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없었거나, 타 문화권에 있는 로마 카톨릭 사제나 수녀가 없었거나, 현재의 선교사 인력의 4분의1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라.

지난 두 세기 동안 서구 문화권에서의 변화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이 책 뒤에 있는 부록A ‘새로운 싱글 정체성’, 부록B ‘싱글이라도 괜찮은가?’, 부록C ‘돌아온 싱글’, 부록D ‘정략결혼’을 읽어라. 청소년기 이미 결정된 싱글에 대한 심화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adolescence>에서 <사춘기 이해>를 참조하라.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http://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